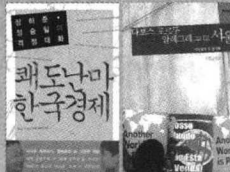


# 후보도서

《패도남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 지음·이종태 엮음 | 부키 | 240쪽 | 값 9,800원  
신자유주의, 성장과 재벌, 노사관계, 외환위기, 박정희 개발독재의 의미와 파장 등 한국경제의 현상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는 책이다. 본문에서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는 대담을 통해 기존의 민감한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과 지론을 펼치고 있다.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이강국 지음 | 후마니타스 | 398쪽 | 값 15,000원  
다보스와 포르투알레그레는 각기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상징하는 도시다. 책은 세계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양 극단의 이데올로기를 조명하고, 신자유주의가 세계 금융과 무역, 그리고 한국의 노동과 소득분배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뜯어본다.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박노자 지음 | 인물과사상사 | 382쪽 | 값 13,000원  
토착종교와 개신교, 교육 등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상징적 개체들이 갖는 근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개화기의 부국강병론과 경찰국가의 꿈, 상무문, 박은식의 '몽배금태조', 고구려로 기억되는 '민족의 힘', 박정희식 민족중흥 등에서 근대의 '힘'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되새긴다.

《제노사이드》 최호근 지음 | 책세상 | 448쪽 | 값 22,000원  
책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잔혹했던 13건의 제노사이드를 보여주며, 인종과 종교 혹은 정치·사회적 이유로 자행된 대량 학살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4·3이나 6·25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 등 우리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주시시키며,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고길실 지음 | 앨피 | 350쪽 | 값 13,500원  
부안은 단순한 지역 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자는 182일간의 투쟁과정에 직접 참여, 그 생생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결코 '남비'가 아닌, 사회적 반행 운동으로 부안사태를 매긴 책은 일련의 투쟁과정에서 직·간접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민주?민중의 참 의미를 날카롭게 되묻고 있다.

《수메리인(상·하)》 윤정모 지음 | 파피르 | 각권 368쪽 | 각권 값 9,500원  
《고베》의 작가 윤정모가 자못 시선을 달리하고 펴낸 장편소설. BC 3천 년경 세계 최초의 문명국인 수메르의 연원을 한민족의 뿌리인 환족에 건주는 신화적 상상력이 독특하다. 소호국 왕자 에인이 침략의 위기에 처한 속국 밭을 문 정벌을 위한 원정에 나서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김선우의 사물들》 김선우 지음 | 놀와 | 228쪽 | 값 9,000원  
술가락과 어머니, 의자와 꿈, '황홀한 통증'의 뿌리인 뭇, 송곳니와 손톱깎이, 아름다운 꿈과 화장대, 잃어버린 시간과 휴대폰... 자못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생활 주변의 흔한 사물들을 저자 나름의 이미지 연상으로 그려낸 산문집이다. 평범한 사물에 대한 기발하고 도발적인 묘사와 형상화가 인상적이다.

《노블 앤 뽀뜨그라피》 진동선 지음 | 시공아트 | 216쪽 | 값 10,000원  
소설 속 이미지와 사진의 만남을 시도한 독특한 포토 에세이다. 조세희, 신경숙, 공지영, 이청준, 안도현, 함정임 등 내로라하는 한국 현대문학의 20명 작가들의 작품 속 이미지와 김병훈, 박병무, 진훈, 김종길 등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절묘하게 오버랩시키고 있다.



《터치 아프리카》 정해종 지음 | 생각의나무 | 272쪽 | 값 15,000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아프리카 미술이야말로 20세기 미술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매력적인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시먼의 평면미술이나 짐바브웨의 돌로 지은 집처럼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종교와 미술에서 신과 인간의 교감을 찾아내는 아프리카 미술의 미덕을 그리고 있다.

《푸른 개 장발》 황선미 지음 | 웅진주니어 | 194쪽 | 값 8,000원  
책은 저자의 아버지가 기르던 개를 모델로 했다. 새끼를 향한 애정, 주인에 대한 충성심, 주변에 대한 배려 등 착한 심성을 지닌 개 '장발'의 모습이 자못 감동적이다. 개 역시 인간과 별나 다르지 않은 감정을 지닌 동물이란 점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개만도 못한 인간에 대한 은유적 냉소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질 꽃산행》 현진오 지음 | 궁리 | 410쪽 | 값 22,000원  
점봉산, 동강, 북한산, 천마산, 소백산, 태백산, 주왕산 등 전국의 명산과, 변산비둘기, 앓은부채, 미선나무, 광릉요강꽃, 갯취, 한리송이풀 등 산따라 꽃따라 우리 강산을 주유한 책이다. 식물학자인 저자는 전국을 누비며 우리꽃들을 사진에 담고 기록했으며, 그중 400여 컷의 꽃사진을 컬러로 소개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 신영식 지음 | 파랑새어린이 | 436쪽 | 값 13,500원  
만화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저자가 지난 1998년 펴낸 책을 바탕으로 다시 증보·발간한 것이다. 저자는 환경운동연합에 몸을 담아 오랫동안 전국 곳곳의 환경오염 및 공해현장을 발로 뛰어 고발해 왔다. 책은 생생하고 알기 쉬운 내용의 만화를 통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